

광융합 5곳 동행 일본 시장개척단, 550만 달러 구매계약

진흥회, 기업 글로벌화 교두보
현지 11개사와 신규사업 모색
광융합 신기술·우수 제품 호평

현지 환경 답사, 신규 프로젝트 발굴 논의 등 활발한 소통을 통해 총 550만 달러 규모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참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진흥회)에 따르면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우리로(광분배기) △㈜달빛엘이디(DC베이스 조명) △㈜다온씨앤티(스마트팜 제어시스템) △㈜유비넷시스(재난용 배터리팩) △㈜남전(LED 십자등) 등 국내 기업 5개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꾸준한 수요를 나타내는 광융합 분야 우수제품을 선보였다.
첫날 신주쿠에 마련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일본 유망바이어 33개사가 참석했다. 75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한화 약 77억 원에 달하는 구매계약 성과를 거뒀다.
둘째 날부터는 일본 광융합산업 분야 기업 11개사를 방문했다. 제품생산·설치 현황을 답사하고 일본 시장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 간 신규 프로젝트 발굴·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가 마련됐다.
또한 진흥회는 일본 사단법인 에코파(Ecofa) 추진기구 및 LED광원보급개발기구(DLEDA)와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과 함께 광융합산업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 상호 프로젝트 협력,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지원 등 양국 상호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내 참여 기업들에게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 유망바이어 발굴 및

수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국내·외 경제 악재 속에서도 광융합분야 신기술·우수제품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에게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시장개척단을 통해 발굴한 현지 바이어들을 오는 10월 열리는 ‘PHOTONICS KOREA 2025(제23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에 초청해 수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최근 국내 기업 5개사와 ‘2025 일본 광융합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왕갈치 맛보셔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수산매장에서 1마리 당 3kg가 넘는 대물 먹갈치를 선보인다. 목포 산지에서 직송되며 대형 갈치라고 불리는 1kg대, 2kg대 갈치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광주점 제공

GICON-벌크커피 ‘광주형 콘텐츠 융복합 유통’ 협약

지역 콘텐츠 IP 유통 기반 확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0일 지역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인 ‘벌크커피’와 광주형 프랜차이즈 연계 콘텐츠 융복합 상품 유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 지역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게임·애니메이션·웹툰 등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융복합 상품을 공동 기획·제작하고 벌크커피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광주 대표 콘텐츠 라이선스를 활용한 공동 상품 개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 콘텐츠 상품의 유통 △민관 협력을 통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한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과 벌크커피가 20일 광주형 프랜차이즈 연계 콘텐츠 융복합 상품 유통 협약을 체결했다. GICON 제공

특히 광주에 본사를 둔 전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벌크커피는 지역 콘텐츠 IP 상품의 대중적 노출과 소비자 접점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GICON이 추진 중인 ‘지역특화 콘텐츠제작지원사업’의 연장선이다. 지역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IP(지식재산권)를 상품화하고 유통하여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GICON은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에서 개발된 콘텐츠 IP 상품들을 벌크커피와 같은 지역 기반 유통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사·제조사·기획사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 콘텐츠 IP 상품 유통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콘텐츠 IP 상품의 지속

적인 판로 확대와 민간 네트워크 기반 유통 생태계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경주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콘텐츠 산업이 실질적인 유통 채널을 확보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광주형 프랜차이즈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IP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홍승현 기자

5월 동행축제 보름 간 1799억 원 매출 달성

온라인 1456억·오프라인 343억
30일까지 지역 곳곳 행사와 연계

은 ㈜10가트’의 여름용 티셔츠로 2억원의 판매 실적을 냈다. 원앙에프엔비(냉동식품), 영주마실푸드엔헬스(과일착즙) 등은 전월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하며 특수를 누렸다.
중기부는 이번 5월 동행축제부터 공식 누리집에 ‘동행 300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직접 매출 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판매 성과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판매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성과관리 등 후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제를 알리는 홍보콘텐츠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동행축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가수 ‘선’이 출연한 쇼츠영상은 147만 회, 메인 홍보 영상은 203만 회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동행 축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동행축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들께서 남은 동행축제 기간까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되고 경제 전반에는 따뜻한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동행축제 2주 간 매출이 1,799억 원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오픈마켓·TV홈쇼핑·전통시장 등) 1,456억원, 오프라인(지역 판매전·백화점 등) 343억원의 직접 매출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은누리상품권 1,165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204억원이 판매됐다.
나주, 세종, 인천,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한 개막 특별전을 포함해 14일간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한 판매전에서는 소상공인 824개사가 참여해 현장 매출 25억 원 성과를 거뒀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보고 먹고 사고 즐기는’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틀어 최고 매출 제품

금호타이어, 한달 간 공장 인근 세척 살수차 운영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쏟는다.
금호타이어는 한 달 간 소춘, 송정, 선운, 도산 등 광주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대를 순회하면서 도로에 떨어진 분진 등을 세척하는 작업이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달 간 휴일 없이 운영하며 시운행 후 증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기관, 아파트 내 놀이터 등 정소 자원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한 달 간 소춘, 송정, 선운, 도산 등 광주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운영한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공장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 다”며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홍승현 기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